



† 신청서 양식 †

공지사항 | 시스템 | 세계관 | Q&A

-
- † 본 문서는 커뮤니티 '[■■의 아이들](#)'의 신청서 양식입니다.
 - † 하늘색의 글씨는 상단 로고를 포함하여 신청서 작성 후 모두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접수 메일 주소는 ho.vill.children@gmail.com입니다.
 - † 신청서 제목 양식은 [이름 / 공개 재능 / 성별] 입니다.
 - † 신청서에 사용된 이미지는 본문 삽입과 파일 첨부 모두 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수정은 총 3회 가능하며 수정 시 메일 제목 뒤에 '+n차 수정'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내 오류가 있더라도 일절 피드백을 드리지 않습니다. 전송 전 재검토를 권고드립니다.
 - † *가 붙은 항목은 소수 선발 대상입니다.
-

† 공개 설정 †

" 같이 바다 갈래? "

[두상]



[전신]



[이름]

심연 / Shim Yeon

[나이]

14세

[성별]

여성

[국적]

한국

[키 / 몸무게]

149cm / 40kg

[성격]

[Keyword : 솔직하고 무뎀한, 의미심장한 말들, 아는 척하는, 호기심 많은, 다양한 관심, 마이 페이스]

아이는 직설로 내어지는 알고자 하는 것들을 좋아한다. 무엇이든 시야에 들어오면 좋아하고 보는 편이기도 했다.

좀이 쑤셔 참지 못하고 일단 이게 재미있을 것 같아, 저게 흥미로워, 하는 식으로 호기심에 이것저것 건드려보고 흥미가 떨어지거나 관심이 식으면 나 몰라라 팽개치는 일도 때문에 잦았다. 단순하고 가벼워 아군이 쉽게 모이는 만큼 적을 만들기 쉬운 성질. 그래도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번 가진 관심이 쉬이 식지 않는 편이다. 시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우선적으로 호의 어린 궁금증을 가진다. 어쩌면 ‘아이답게’ 스스로가 아이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 부러 어른인 척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고, 자신은 그것을 전부 이해하는 척하는 것도 다 어리다는 이유로 얹잡히지 않고 싶어하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일 테다.

그러나 스스로가 아이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아직 어린 티가 나는 솔한 관심. 상대의 기분을 재단하고 눈치를 본대도 단순한 사고에 그칠 뿐이다. 금방 기분이 달아오르거나 식어 버리는 것도 전형적인 어린애다.

[기타사항]

- 푸른 머리카락이 굽이치는 아래 기이하도록 무채인 회색 눈동자. 아이답게 순한 눈매.
- 해양연구원인 한국인 부부의 외동딸. 아동학대까지는 아니나 연구소의 일로 바빠 거의 아이는 방임에 가깝게 자랐다. 다소 제멋대로인 면이 있는 것도 그 탓일 것이다.
- 태어나고 3년까지는 서울에서 살았으나, 현재 본가는 부산에 있다. 한국해양연구소의 일로 부모가 이사했기 때문이다.
- 바다며 수영을 접한 것은 그러므로 서너 살쯤 되는 해부터였다.
- 좋아하는 장소는 바다. 편안한 장소는 발이 닿는 얇은 물 속. 좋아하는 것은 수영. 잘 하는 것도 수영. 좋아하고 잘하는 것과 별개로 이기고 지는 것이 있는 겨루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 감각 능력이 뛰어나다. 시각, 청각, 촉각에 특히 예민하다.
-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버릇이 좀 나아졌다.
- ‘학업’은 싫지만 ‘탐구’는 좋다. 강한 호기심에 의해서다.
- 그 외에도 좋아하는 것들은 많다. 사실 싫어하는 것이 손에 꼽을 정도. ‘싫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나, 그런 대상이 잘 없기는 하다.
- 별개로 못하는 것은 꽤 자주 존재한다. 춤이라든지, 다른 운동 종목이라든지... 몸을 쓰는 것은 대부분 그런 대로 하는 편이나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등, 손만 쓰는 것은 쟁쟁하다. 가지고 다니는 머리끈이 있는데 그것으로 스스로 머리를 묶을 줄 아는 것이 용할 정도로...
- 명량한 목소리. 발음이 또렷하다.
- 무거운 것을 싫어한다. 옷도 들게 되는 물건들도 말도 분위기도. 물론, 내어놓는 말의 경우에는 관심 있는 이가 그 말의 주인이라면 견디는 편이다.
- 그 외, 여전히 변하지 않은 듯 당신이 아는 ‘심연’이다.

[소지품]

수경, 물병, 긴 머리끈

*[선관]

[스탯]

힘 ★☆☆☆☆
 체력 ★★★★★☆
 민첩 ★★☆☆☆
 지능 ★★☆☆☆
 운 ★☆☆☆☆

† 비공개 설정 †

" 그럼 숨 참아. "

[두상]

[전신]

[이름]

심연 / Shim Yeon

[개화 재능 - 잠수부의 아이]

깊은 해저 아래까지도 문제없이 헤엄쳐 내려가 탐사할 수 있다.

*[비밀 개화 재능 - ■■의 아이]

[이능력 - 귀신고래의 눈]

설명 및 패널티: 심해, 우주, 암흑, 시야 차단, 광원이 없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더라도 악조건을 무시하고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그곳에 있는 어떤 것이 세상에 최초로 존재하게 되는 순간은 그의 눈에 달렸고, 그 존재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지는 그의 입에 달렸다. 어떤 환경에서든 무언가를 탐사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패널티는 없는 듯 보이나, 실상 '감각'을 발달시키는 이 이능력은 패널티로 '감정'을 갉아먹는다. 즉슨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패널티는 공감능력을 극도로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이 능력을 보유한 재능인은 '인간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다.

[키 / 몸무게]

cm / kg

*[성격]

[Keyword : 기이한 탐구심, 기형의 지식욕]

아이는 ‘아는 것’을 힘으로 여긴다. 달리 어떤 힘을 자신이 휘두르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있어 자신이 모르는 면이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오만이 있다. 이는 아이에게서 유일하게 뚜렷이 보이는 욕망이기도 하다. 기이할 정도로 커다란…… 자신의 존재를 깹아먹고도 ‘인지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기타사항]

[호불호 아이템]

호: 망원경, 미니 현미경 모형, 워터볼

불호:

[과거사]

아이를 키운 부부는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다. 애당초 연애로 만난 것이 아닌 거의 필요에 의한 결혼에 가까웠고, 아이가 생길 줄 몰랐으나 양육자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방임에 가까운 가정교육은 그들 부부의 부모로서의 미숙한 부분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다만 그들이 아이에게 단 하나 또렷하게 가르친 것은 ‘궁금한 것은 참지 않아도 괜찮다’는 명제였다. 궁금한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알고 싶은 욕구 또한 기본적인 욕망 중 하나다. 그래서 그들은 직업상의 이유로라도 아이의 보편에서 상이하게 떨어진 성질을 눈치채지 못했다.

애정보다는 필요성과 의무성이 더 가까웠으므로 아이가 타인에게 애정을 줄 수 있음은 어찌 보면 대견한 일이다. 그러나 그의 알팍한 애정은 욕망에 필히 패배할 것이다.

*[선관]

[선관 동시 합격여부]

[스탯]

힘 ★☆☆☆☆

체력 ★★★★★

민첩 ★★☆☆☆

지능 ★★☆☆☆

운 ★☆☆☆☆

[정신력]

★★★★☆

† QnA †

Q1. 당신은 천해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새로운 게 또 엄청 많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

Q2. 사립 천명 학원에 입학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A. 궁금해. 내가 분명 어떤 재능이 있으니까 입학하게 된 거겠지? 기왕이면 수영선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 수영 잘 해!

Q3. 본인이 희망하는 재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이미 말해버렸네!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좋아. 역시 수영선수밖에 없겠지? 그런 건? 하지만 생각해보면, 겨루는 건 별로인데…… 그냥 헤엄치는 게 직업인 사람은 없을까?

† 챕터 수요조사 †

	피해	검정	졸업검정	랜덤처형	처형난입	궁그닐	자살	실시간
1챕터	O	O	X	O	X	X	X	O
2챕터	O	O	X	O	X	X	X	O
3챕터	O	X	X	O	X	X	X	O
4챕터	O	X	X	O	X	X	X	O

5챕터	X	O	X	O	X	X	X	X
-----	---	---	---	---	---	---	---	---

[흑막]

O

[흑막 지원 동기]

정확한 진상이나 스토리의 비하인드는 당연히 알지 못하나, 러브크래프트의 크툴루 신화 역시 기반하는 커뮤니티만큼 ‘탐구’를 원하는 기형적인 욕구를 가진 캐릭터가 흑막을 맡으면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 흑막에 자원합니다. 크툴루 신화에서 보통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코즈믹 호러, 즉 우주적 공포로 거대한 미지의 것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인지함과 동시에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지요. 예컨대 곧잘 ‘광기’라고 표현되는 순수한 욕구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라 생각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살인 및 공포를 등에 업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흑막 선정에 의한 과거사 및 캐릭터 설정의 대대적 변경을 감안하였습니다.



성장 IF: 어쩌면 거의 그대로 자랄 것 같습니다.(외관도 이 어필을 위해 거의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이한 지식욕을 가진 채로, 스스로 알고 싶은 것이 생기면 언제든 몸을 내던져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는 잠수부조. 잠수부의 기본 소양은 개인적으로 ‘탐사’하고자 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러너 캐릭터들에게는 ‘호기심’에 한해서 ‘재 과하다…’ 싶은 확실한 설정 어필을 해보고 싶습니다…. 단간론파 기반 커뮤니티이니만큼 이 설정이 유동적으로 검정(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이나 피해(남의 비밀을 파헤치다가!)가 될 수 있는 위치가 되게끔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흑막을 맡게 된다면 정말로 단간+크툴루 기반에 힘입은(…) 알고자 하는 순수한 욕망에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운영진 분들이 원하는 커뮤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스킬 IF: -

챗터&재능 개화IF: 러너 캐릭터들과 운영진 분들께서 원하는 스토리에 맞게 유동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 확인란 †

1. 단아이에서는 [48]시간 무통보 잠수, 재판 연속 2회 불참 시 진행될 챗터의 참여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캐릭터의 사망 및 하차 처리로 이어집니다. 장기간 잠수가 불가피할 경우 총괄계로 알릴 것을 확인했습니다.
2. 단아이에서는 챗터 외 스토리 진행 및 조사 중 돌발상황에서 오너 동의 없이 캐릭터가 [찰과상, 타박상 등의 가벼운 부상]을 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단아이에서는 천해국은 풍부한 자원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인구수가 매우 적어 [외국인, 혼혈, 교포의 수]가 많습니다.

† 동의란 †

1. 캐릭터의 성장 방향과 스킬, 챗터 등은 커뮤니티의 스토리 및 엔딩상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에서도 하차를 지양하며, 책임감을 갖고 러닝 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Y)
 2. 사전에 제출한 설정 (IF란 포함) 외의 존재하지 않는 설정, 과한 설정 등을 캐릭터에게 부여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십니까? (Y)
 3. 본 커뮤니티는 캐릭터의 리뉴얼/재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본 커뮤니티 내의 문제가 아닌 타 커뮤니티 및 외부에서의 일로 인해 본 커뮤니티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을 동의하십니까? (Y)
 4. 본 커뮤니티의 엔딩 분기에 따라 최종 성장 시, 이능력을 개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능력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 러너와 이능력이 겹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N)
-

† 오너란 †

[연락 가능한 계정 / 닉네임]

@dadam_59 / 덴버

[1차 지인 아이디 / 닉네임]

@Y4NCN / 야논

(1차 지인의 아이디, 닉네임을 작성해 주세요. 운영진의 1차 지인일 경우 운영진의 아이디를